

## 잡아함 68. 육입처경

날짜: 2월 23rd,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672>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항상 수행방편(修行方便)으로 정려(靜慮) 정진(精進)하여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고 사실 그대로 관찰해야 하느니라. 어떻게 사실 그대로 관찰하는가?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의 쌓여 모임이다. 이것은 색의 소멸이다.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식이다. 이것은 식의 쌓여 모임이다. 이것은 식의 소멸이다’라고 사실 그대로 알라.

어떤 것이 색의 쌓여 모임이며, 어떤 것이 수(受)·상(想)·행(行)·식의 쌓여 모임인가? 눈[眼]과 빛깔[色]을 인연하여 안식(眼識)이 생기고, 이 세 가지가 화합하여 접촉[觸]이 생기며, 접촉을 인연하여 느낌[受]이 생기고, 느낌을 인연하여 애욕[愛]이 생기며……(내지)……이와 같이 모든 것이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생기나니, 이것을 색의 쌓여 모임이라 하느니라.

귀[耳]·코[鼻]·혀[舌]·몸[身]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뜻[意]과 법(法)을 인연하여 의식(意識)이 생기고, 이 세 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생기며, 접촉을 인연하여 느낌이 생기고, 느낌을 인연하여 애욕이 생기며……(내지)……이와 같이 모

든 것이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생기나니, 이것을 색의 쌓여 모임과 수 · 상 · 행 · 식의 쌓여 모임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이 색의 소멸[色滅]이고, 수(受) · 상(想) · 행(行) · 식의 소멸[識滅]인가 ? 눈과 빛깔을 인연하여 안식이 생기고, 이 세 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생긴다.

이때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고……(내지)……이와 같이 모든 것이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소멸하게 되느니라.

귀 · 코 · 혀 ·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뜻과 법을 인연하여 의식이 생기고 이 세 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생긴다. 이때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면……(내지)……이와 같이 모든 것이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소멸하게 된다.

이것을 색의 소멸과 수 · 상 · 행 · 식의 소멸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는 항상 수행방편(修行方便)으로 정려(靜慮) 정진(精進)하여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위의 관찰(觀察)경에서 설한 내용과 마찬가지로……(내지)……증(證)까지의 12경도 또한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하셨다.